

공공청사 일회용품 사용 '여전'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전주시·완주군 95% 이상... 전북자치도 37%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31군데에서 3일간의 점심 시간(오후 12시~1시) 동안 4만3,320명이 1만649개의 1회용품을 사용했고, 이는 4명 당 1개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완주행동·쓰레기없는축제전북시민공동행동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항목으로 청사에 출입 인원 대상으로 1회용컵, 개인텀블러, 공유컵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의 1회용컵 사용률(휴대자)을 조사한 결과 △완주군 25.1%(905명 227개), △전주시 21%(1,112명 234개), △전북특별자치

도 3.9%(1,444명 5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음료 반입 인원 중 1회용컵 사용 실태는, 전북자치도는 150명 중 56명(37%)이 1회용컵을 사용했으나, 전주시는 246명 중 234명(95%)이, 완주군은 232명 중 227명(98%)이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개인텀블러 등 사용자는 5%,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전주시, 완주군의 경우 "청사 내 음료 반입 시 대부분 1회용컵을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회용컵 사용률이 낮은 전북자치도(3.9%)는 100명당 4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회용컵 사용(56개)보다 공유컵(81개)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일회용 컵 반입 및 판매를 금지한 결과로 보인다.

음료 반입 인원 중 95%가 1회용컵을 사용한 전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1회용품 없는 날' 등 시민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이 많다는 점에서 조례와 시민 캠페인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완주군은 음료 반입 인원(232명) 중 개인 텀블러 사용이 전체 5건(2%)에 그쳐,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완

주군은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조례가 없다 보니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근거도 부족하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서 1회용품, 페트병, 우산 비닐 등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를 위해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컵 반입 및 판매 금지 정책을 14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이후에도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사랑콜' 여름철 혜택 풍성

8월 말까지 앱 신규설치하면 기본요금 할인 쿠폰 등 제공

전주시는 전주사랑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여름철 택시 기본요금(4300원)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7월과 8월 중 전주사랑콜 앱을 처음으로 설치한 고객에게는 4300원의 기본요금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신규고객이 앱을 통해 자동결제 카드를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로 3000원의 쿠폰이 제공돼 총 73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용자를 포함해 전주사랑콜을 월 5회 이용하면 3000원의 요금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여기에 전주사랑콜의 장점인 전주사랑상품권 10%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사용자는 전주사랑콜 앱에 전주사랑상품권을 미리 등록하면 편리하게 결제하고, 캐시백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주사랑콜은 빠른 배차와

가격 할인 혜택 등의 효과로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사랑콜은 가입한 택시가 늘면서 충분한 택시공급량을 확보한 데다, 서비스 요금에 따라 호출 배정을 구분하는 기존 대형플랫폼과는 달리 동일한 서비스로 모든 차량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손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을 배차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사랑콜은 기존 대형플랫폼과 달리 앱뿐만 아니라 전화(063-223-1114)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높여가겠다"면서 "택시와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전주사랑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찾아 목소리 청취

현장 방문 종사자·참여자 격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날 31일 지역자활센터 사업장을 방문해 종사자와 자활참여자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갖춘 곳으로, 전주에서는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 등 2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2개 지역자활센터에는 현재 총 30개 사업장에서 500명의 저소득 주민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전주시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돼 전주시민들의 신바람복지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280여 명의 노인에게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역자활센터 사업장을 방문해 종사자와 자활참여자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말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1회용 기저귀 사용 줄이기 사업'을 위해 전주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천기저귀 렌탈 및 세탁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발 벗고 나선

전주시와 함께 '다회용컵 대여 및 수거세척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대상자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준홍 덕진지역자활센터장은 "우리 전주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 주민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묵묵히 현장에서 전주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로움을 인내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센터장님과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전주시도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주의 당부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홍역이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여름철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땀기열 등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모기 매개 감염병의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여행시 △모기피피제 사용 및 긴팔 상의와 긴바지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해외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의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접종력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홍역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등의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항 검역관에서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고, 귀국 후 수일 이내 이상 증상 발생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옥기 기자

한전 군산지사, 집중호우 피해가구 찾아 봉사 펼쳐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 노조위원장 고동훈)는 지난날 3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한전 군산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실내 가전, 가재도구 등의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봉사활동을 시행하였음. 봉사단은 군산지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조성된 기금인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선봉기, 위생용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여섯 가



구에 지원하고 전기사용 상담 활동을

시행했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의 심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군산지사는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꾸준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 호성동 자생단체, 얼음 생수 나눔 봉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박은희)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민철)는 지난 30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얼음 생수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는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호성동 농협 사거리 주변을 돌며 200여 병의 얼음 생



수를 나눠주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